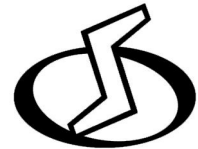


#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8호 2000.8.25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 고홍길/편집인: 조영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 전화788-2371 7 FAX:788-3560 4

## 제8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제8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졌던 각오와 다짐들을 바탕으로 대한속기협회의 발전과 기록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원 및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점동 이사의 개회사로 막을 연 행사에서 바쁜 국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지대섭 회장의 인사말씀을 권용태 부회장이 대독하였다. 지대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화시대의 자질들을 습득하고 계발하는 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과 남북의 영원한 화합을 기원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세기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한 기록자의 위치에만 서 있는 속기인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 21세기에 있어서 속기업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속기인의 사회적 위상 정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기록문화의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꽃이 피는 세미나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국회사무처 임종훈 법제실장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이라는 제목의 제1주제 발표가 있었다. 임종훈 실장은 입법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국회나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법과정을 추상적·관념적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입법과정이 운용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 제·개정되는 입법의 총량을 비롯한 각종 입법관련 통계와 입법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접근과 더 나가서는 입법과 관련한 우리의 정치문화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전문위원이신 정수산 전문위원으로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2주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명지대 김익한 교수의 "기록과 역사 - 최신 동향"에 대한 제3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저녁을 먹고, 오후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때문에 취소된 캠프파이어

를 대신하여 속기가족들은 실내에서 가진 화합의 시간을 가졌는데 속기인들 특유의 화합과 열의는 강원도 횡성군 리조트 건물이 떠나갈 듯 폭발하였다.

각자의 숙소로 돌아간 회원들은 1년만에 만나서였는지 새벽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이튿날, 여유있는 아침 일정으로 모두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의 아침 공기와 바람을 느긋하게 누리고 청태산 휴양림으로 향했다. 잘 자란 나무들과 잘 가꾸어진 숲 속에서 즐거운 소풍을 나온 양 맛있는 점심식사 후 삼림욕을 한 뒤 최황수 이사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번 제8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막이 내려졌다.

## 지방의회 속기사의 일반직화에 대한 의견송부

협회는 지난 8월4일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개선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속기사와 관련된 답변 중 일부 왜곡된 인식에 대하여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협회는 1급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좁은 관문을 뚫고 취업을 했어도 원만한 속기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요구된다는 점과 속기업무는 단순히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 문자화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작업이 아니라 속기사의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청취력, 지식수준에 따라 작성한 원고의 질이 결정되는 것으로 양질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습득은 기획의 단계이며 순간순간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록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시대는 기록과 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속기인이 되기 위하여는 그에 걸맞은 전체 속기인들의 지위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지방의회속기사들의 지위를 일반직화 시키는데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의회속기직원 연수과정

2000년 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국회사무처 연수국에서 전국 지방의회 속기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속기직원연수과정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35개 의회에서 54인의 지방의회속기사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담당업무 분야별로 실시되었는데 전문성 제고 및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수요지향적 교육과 사례중심으

로 이루어져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았다.

- 강의내용 : 회의록전산화(국회 의사국 속기1과 이주성 사무관)  
 의사진행 보좌실무(국회 의사국 기노진 의사과장)  
 속기와 속기인의 미래(국회 의사국 성천영 기록심의관)  
 회의록작성관련법규(국회 의사국 홍순관 속기1과장)  
 회의록작성 및 편집실무(국회 의사국 속기1과 박정호 서기관)  
 의안처리 실무(국회 의사국 임중호 의안과장)
- 특강 : 지방의회 관련 주요사항(주영진 의사국장)
- 국회사무처 속기직원과의 토론회
- 국회 주요시설 현장 견학(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국회회의록보존실)

제8회 속기경기대회 결과보고	
<b>일 시</b> : 2000년6월10일 10:00~11:20 <b>장 소</b> : 국회사무처 전산교육장,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 <b>접수인원</b> : 40인 <b>참석인원</b> : 30인	<b>시상자 명단</b> 금상: 윤미영 은상: 임 현 동상: 주혜강

### 일본·호주의회 시찰

대한속기협회는 2000년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11일간 일본속기협회, 일본의회, 호주 퀸즈랜드주의회 및 호주 연방의회를 방문하였다.

협회의 김덕진 회원부장을 단장으로 손숙자, 장미경, 이동준, 서현숙 등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팀은 5월30일 오전 일본속기협회를 방문하여 坂本清 이사장과 中根康雄 부이사장 등을 만나 속기협회의 구성 및 역할, 협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본 협회의 소식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왔다.

또 오후에는 일본 중의원을 방문하여 高橋德光 중의원 기록부장과 内田勝一 기록부제2과장 등을 만나 회의록 작성과정과 회의록 보존 및 전산화 단계, 속기사의 채용기준 및 대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시회의록은 특별한 경우에만 발간되고 있다. 일반적인 회의록 발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2인 1조가 되어 속

기를 하고 번문한 후 여러 차례의 검토·교열작업을 거친 뒤 회의록이 완성되는데 정식회의록은 회의 종료 3일 후면 볼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회의록을 인터넷에도 올리는데 본회의의 경우는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와 달리 속기과에 조사부와 데이터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 번문시 나오는 각종 신종어 및 전문용어 등을 즉시 제공해 주고 있어 신속한 회의록발간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취합, 인터넷 등록 등의 일을 전담하고 있는 점이였다.

속기사의 채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 중의원 속기사들에 대한 대우는 처음엔 일반 행정고시출신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진급이 느리며 급료체계도 다르다고 했다.

한편, 6월2일에는 호주퀸즈랜드 주의회를 방문 Raymand K. Hollis 의장과 Alan Waston 속기과장 및 속기사들을 만나 회의록 발간과정과 전산화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퀸즈랜드 주의회의 경우에는 현재 5명의 기계속기사와 3명의 편집인이 회의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본회의, 위원회 모두 1인당 10분씩 속기한 후 교정,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인쇄전에 각 의원사무실로 보내(각 의원 발언시간 2시간 이내) 다시 한번 확인작업을 하고 인쇄에 들어가는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일회의록을 발간하고 인터넷에도 올린다고 한다.

또한 6월5일과 6일 이틀 동안은 캔버라 연방의회를 방문하여 Ian Harris 사무총장과 Bernard Wright 사무차장, Tervor Fowler 속기과장 등을 만나보았으며 연방의회 본회의장 견학을 비롯해 회의록 발간과정 및 보존, 속기업무의 전산화, 속기사에 대한 재교육, 의회내 인쇄소, 방송국 등을 둘러보았다.

연방의회의 경우는 기계속기사 7명, 수필속기사 1명, 음성인식기 이용자 20명, 타이피스트 9명, 편집 13명, 감독 10명이 회의록 발간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음성인식기는 수필속기사를 기계속기사로 재교육하는데 어려움을 덜고자 도입된 것으로 써 현재 분당 120 단어 내지 130단어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회의록작성시스템(Hansard Production System)은 회의록 발간 전 과정을 관장하는 것으로 민간에 용역을 주어 개발하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한다.

일본 중의원 속기사들과 호주 연방의회 속기사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승진기회에 있어 다른 직종에 비해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속기계의 분위기는 침체되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질 좋은 회의록을 발간하기 위해 직원들 스스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동료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모습들은 이번 방문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 회 원 동 정

### 승진 · 축하합니다.

- ▶ 김기영(국회사무처)/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전문위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00.7.28)
- ▶ 홍순관(국회사무처)/서기관 → 부이사관, 속기1과장(00.7.28)
- ▶ 이주성(국회사무처)/속기사무관 → 서기관, 속기1과1담당(00.8.1) 정년퇴임·수고하셨습니다.
- ▶ 황인하 이사관(국회사무처)/(00.6.30) 명예퇴직·수고하셨습니다.
- ▶ 양진숙(국회사무처)/(00.8.10)

### 임용 · 축하합니다.

- ▶ 김희준, 박윤혜, 박정현(국회사무처)/속기1과(00.8.18)
- ▶ 김송화, 유경화, 주정순(국회사무처)/속기2과(00.8.18)

### 전보 ·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 하양배(국회도서관)/총무과장→색인과장
- ▶ 노희남(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장→호남지역본부장

### 파견 · 수고하셨습니다

- ▶ 조미경/국회사무처 속기1과→ 대한민국헌정회(00.6.1)

### 복귀 · 반갑습니다.

- ▶ 황은화/대한민국헌정회→국회사무처 속기1과(00.6.1)

### 교육 · 수고하셨습니다

- ▶ 권영찬, 최예숙, 김란희 속기사무관(국회사무처)/신규관리자과정(00.7.10~7.28)
- ▶ 주정순, 김희준, 유경화, 김송화, 박윤혜, 박정현(국회사무처)/신규실무자과정(00.8.21~9.8)

### ※ 황인하 전 이사장 근황

세계침구학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제5회 세계침구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

### 제5회 세계침구학술대회

장소 : 잠실 롯데월드

일시 : 2000. 11.12~11.15

내용 : 4년마다 열리는 침구사의 올림픽이라 불리며 세계7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약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회